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오래를 함께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 세금 거래 성격의 고액, 저금
1%의 저금, 대우혜택 등입니다.
● 3년이상 거래하면 저금까지
연세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6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형 / 발행인 김원집 / 편집인 김광삼 / 논설위원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구 경치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월 15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해마다 찾아오는 새해지만 우리는 이맘때면 새출발로 마음을 다지게 된다. 그만큼 새로움이 주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매년 발심한다. 그리고 발심을 지탱해주는 것은 비로 정진력이다. 정진하는 힘 때문에 갖가지 일을 잘해나 다 이룰 수 있게 된다. 작은 불도 깨달음이 흐르면 능히 들을 줄는 것과 같이 정진했을 일오면, 그 힘으로 일념(一念) 사이에 백만삼천대천세계를 부순 티끌 수만권의 보살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고 한다. 얼마나 큰 힘인가. 그저 정속년 한해를 정진으로 열따름이다. <편집자 주>

확고히 정진해 마음에 늘 있다. 도를 빨리 알지 못한 번민하지 않는다면, 온갖 과 다고 한탄하거나 불서지 도움이 없어도 구하는 일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이 달성될 것이다.

(방불경) **정진 앞에 못 이룰 일 없네**

힘든다는 생각 없이 정진바라기를 행하라. 힘쓰고 계으르다는 것은 본래 없기 때문이다. (반야경)

보살은 쉬지 않는 정진. 두려움이 없는 정진. 물려잡이 없는 정진. 넓은 정진. 가 없는 정진. 광명에 넘치는 정진. 비견할 것이 없는 정진. 파괴되지 않는 정진. 온갖 중생을 교화하는 정진. 좋은 도리와 그른 도리를 잘 분별하는 정진을 성취한다.

(화엄경) 정진력을 수행해 성취해야 한다. 정진력 때문에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대승성무량수경)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바 있어 아 할 것이나, 끝없는 정진 앞에는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이다. (유교경)

활을 쓰야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 만큼 노력한 것이나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생명사상 체험 사찰생태기행 15면
'97 신행 캘린더 11면
큰스님 수행한담-구암스님 8·9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종립교고 정보화교육 소극적

인문계학생 84% 전산교육 소외

본지 13개 고교대상 '전산실태' 조사

지난 90년부터 지속된 정부의 사실부자에도 불구하고 일선 종립고등학교의 컴퓨터 시설과 전산교육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보교육의 커다란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지가 구입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3개 종립교고에 대한 '전산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교육용 전산실 1실 이상을 보유한 학교는 총 12개교(92%)였으며, 여기에는 전산교육이 가능한 컴퓨터 486급이 61% 설치돼 있으며 나머지는 전산교육에 부적합한 386급·286급·XT급 등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K고교(전북)와 같은 실업계 종립교고 3곳을 제외하면 전산교육이 가능한 486급 이상을 보유한 종립교고는 38%에 불과하며 정규전산교육을 이수한 교원은 6명(40%)에 그치고 있다. 또 10개 인문계 종립교고 중에서 9개교는 전산교육 피교육자를 '직업반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문계 종립학생의 84%가 최소한의 전산교육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배경에는 '현재 초·중·고교 전산실 시설부자에 주력하고 있어 운영지원금이

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 정보를 통한 가치창조 능력이 현실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종립교고의 전산교육이 정보교육으로 조속히 전환돼 종립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이 마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교육에 대한 불교교육계의 인식과 재정 부족이 컴퓨터교육을 위한 과외교육으로 치부하는 등 종립학생들을 정보교육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며 종립교고의 전산교육 실태를 지적한 일선교사는 '신학연대와 같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21세기 정보사회의 주역이 될 종립학생들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종립교고의 적극적인 지구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본지의 전산실태조사결과 종립학교의 컴퓨터 시설과 전산교육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전산고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북한동포 식량보내기 성공 10일 韓赤에 5천만원 전달

우리민족돕기 불교본부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박봉)는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구입 12일 청탁이후 북한동포

에게 식량을 보내기 위해 모금한 5천만원을 김영춘총재에게 전달했다. <성금내역 4면> 이날 전달식에는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와 한아름한몸운동본부, 원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에서 각각 모금한 243천만원도 함께 전달됐다.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정삼(수덕사주지)은 '불남 전에 북한에 식량을 전달해 동포들이 함께 즐거운 평정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선중립통해 정교분리 실현"

조계종 월하종정 신년하례서 당부

조계종정 월하스님은 지난 8일 가진 종단집행부 신년하례식에서 대통령선거는 정교 분리 정신에 입각해 불교인으로서 엄정중립을 지켜 흔들림 없는 자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울 사업 발표

20일 월주스님 기자회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0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 통해 새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월주스님은 '전법의 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비롯 계달음의 사회화운동의 지속적 추진, 한민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또 대선과 관련해 불교계의 중립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승단 창립 10주년 28일 세종출서 법회

대한불교 경승단(총재 일주)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출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총재 일주(조계종 총무원장)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출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총재 일주(조계종 총무원장)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출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총재 일주(조계종 총무원장)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출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본사 사령

- 이창호 총편집위원
- 정성운 편집국 차장대우 (1997년 1월 1일자)의면면직
- 이준업 취재1부 차장대우
- 임연태 취재3부 차장대우 (1996년 12월 28일자)

새 기획 法數로 배우는 불교 6면

신도교육 시범사찰 조계종, 지역별 운영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신도입문 및 교육의 체계화를 '전법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하고 외국의 신도입문·교육사례를 수집하고 체계화방안을 수립, 지역별 시범사찰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포교원은 지난 8일 새해사업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도입문·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통일법요집>의 보완 편찬, 신

도교리교육 교재를 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신도교육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체계화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올해안에 법제화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또 '전법의 해'를 맞아 전법의 체계적 전개를 위해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조직간의 결속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포교활동의 체계화를 위해 포교관계 법령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3월중 개최되는 중앙종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말 완공을 눈앞에 둔 당진제철소 B지구



당진제철소내 건설될 무공해 부상기스 빌전소

最大의 민영제철소

한보의 신기술이 만든 민영 최대의 당진제철소! 21세기를 여는 '꿈의 제철소'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最大의 제철소** 단일 민영 제철소로는 최대인 110만평 규모의 당진제철소는 본격적인 철강의 서해안 시대를 연 차세대 제철소입니다.
- 最初의 수출** 국내 최초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에 핫코일을 수출한 한보철강은 이미 동남아를 비롯, 이란 등 전세계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最尖端 기술** 국내 최초로 최첨단 전기로 열연코일 생산에 이어 코엑스공법으로 고품질, 고부가까지의 철강을 만듭니다.
- 最高의 환경** 집진시설과 녹지공간, 그리고 무공해발전소 등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만들었기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습니다.

한보